

공직문화 혁신에 팔 걷어붙였다!

- 한층 민첩하고 유연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3대 실행방안'을 마련해 추진
 - * 3대 실행방안 : ① 실무직원 중심의 인사제도 운영, ② 수요 맞춤형 전문교육 제공, ③ 즐겁고 활기찬 소통문화 조성
- 더욱더 '일 잘하는 조직'으로 거듭나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성장 뒷받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가 공직문화 혁신에 팔을 걷어붙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층 민첩하고 유연한 공직문화를 만들어 새정부 2년차 국정과제 성과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직문화 혁신은 이미 조직 구성원의 주축으로 부상한 엠제트(MZ)세대와 기존의 기성세대가 한데 어우러져, 더욱더 '일 잘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부는 「조직과 개인이 함께 발전하는 원년」을 목표로 ① 실무직원 중심의 인사제도 운영, ② 수요 맞춤형 전문교육 제공, ③ 즐겁고 활기찬 소통문화 조성의 '3대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즉시 추진하기로 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무직원 중심의 인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한다.

이를 위해 먼저, 중소기업부 인사부서(운영지원과)가 16개 소속기관*을 찾아가는 순회 인사설명회를 개최한다.

* 소속기관 :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3개 국립공고

주로 5급 이하 실무직원으로 구성된 소속기관 직원들이, 정부 인사제도 및 중소벤처기업부 자체 인사규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매주 목요일을 지정하여 누구나 부담없이 인사고충을 상담할 수 있도록 정례화하고, 인사상담 신청·관리도 온라인화*하여 익명성을 보장하는 등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제공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망 시스템에 ‘인사상담신청’ 메뉴를 신설하여 수시 신청

이는 그동안 직원들이 인사고충이 있어도 주변에 대한 의식과 적절한 상담창구 부족으로 인사상담에 부담을 가져왔던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전문성 확보를 위한 수요 맞춤형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과정은 조직 구성원의 변화하는 시대 흐름과 정책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대상별·역량별*로 체계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 ▲대상별 : 고공단, 과장급, 서기관, 사무관, 주무관,

▲역량별 : 공통(핵심가치, 조직문화 등), 계층(직급별 역량평가, 국내외 교육), 직무(정책 현장체험, 분야별 실무), 개인(외국어교육, 학위취득 등)

특히, 정책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과 정책고객과의 대화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체험형 교육’을 신설해, 사무관 이하 실무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셋째, 즐겁고 활기찬 소통문화를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영 장관 취임 후 장관과 실무직원들이 시기별 특정 주제로 토론하는 ‘장쫄만’(장관님 쫄 만납시다)이라는 행사를 가져왔는데, 올해에는 토론주제와 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직원에게 ‘환영 선물 꾸러미*’와 ‘중기부 사용 설명서’를 제공하여 신속한 공직 적응을 돕고, 직장 동호회 지원도 확대해 즐겁고 활기찬 조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환영 선물 꾸러미 : 환영카드, 공무원증 케이스, 업무수첩 3종, 기념품(전산기기 등)

이영 장관은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직문화 혁신방안은 우수한 역량을 가진 조직 구성원들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여, 더욱더 일 잘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언급하며,

“직원들의 역량이 커지는 만큼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도 더욱 단단히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운영지원과	책임자	과 장	김지현 (044-204-7020)
		담당자	사무관	김도완 (044-204-7022)

